

전주시, 비수도권 중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선정

한국형 도시 모니터링 K-UMF 조사 결과 전체 38개 지표 중 25개서 강점 나타내 우수도시 평가

전주시가 국내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올해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조사'에서 비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지속가능한 도시'로 선정됐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시의 지속가능성 조사는 전 세계 도시들이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국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세계 도시와 비교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시는 이번 K-UMF 조사에서 전체 38개 지표 중 25개 지표에서 강점을 나타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국내외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강점이 많은 우수도시로 평가됐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에서 국제연합(UN)의 4대 도시 의제 중 '안전하고 평화로운 도시'(88.9점)와 '포용적인 도시'(70.4점) 지표에서 강점을 보였

다. 실제로 시는 현재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교량·터널·배수지 등 자연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기반 안전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시는 전주객사길 등 도심 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보행구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2026년도까지 친환경 수소차 및 전기차 약 1만1600대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여기에 시는 온종일 아동돌봄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 시행 등 생애주기별 전주형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안심마을 확대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며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탄탄한 안전·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이끌었다.

아울러 시는 올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차콜 운영을 확대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보훈단체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및 장애인일자리 종합타운 조성 추진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시는 향후GDP 성장률과 대중교통 분담률 등 비교적 취약한 지표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한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옥기기자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가을학기 직업교육생 모집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2023 가을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번 설명회에서 가을학기에 운영될 총 42개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취업 관련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퍼스널컬러 기법'을 통한 자기탐색 및 자존감 향상'을 주제로 한 취업인식 전환 특강도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 진행되는 가을학기 교육은 18개 일반교육과정과 5개 구청지원과정, 19개 내일배움카드제교육 등 총 42개 과정이다.

이 가운데 일반교육과정은 △별년역사특별지도사 △교양원예지도사 △왕초보스마트폰 △갈림바연주 △테라리움 2급과정 등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교육비의 80%를 지원하는 구청지원과정은 △퍼스널컬러(2급) △커피바클레이아트강사(2급) △토탈공예지도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은 △요양보호사 △미발판조리 △감성캘리그래피 △아이돌봄 △정리수납전문가 과정 등 19개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특강 사전접수 및 자세한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www.jjwoman.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232-2346)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검색하고 친구 추가를 하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

경기도 수원시 열린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서 홍보 부스 운영

전주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경기도 수원시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에 참가해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현재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

된 행사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지역특산물·공예품·체험형 답례품 52종을 소개했다. 또한 부스 내 포토존을 운영하고, 토크 돌리기 이벤트를 진행해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계기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전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경우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 또는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참여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 추진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시는 28일 대성공영주차장에서 전주 덕진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와 합동으로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 점검은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하반기 안전 점검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유한 전주시 32개 지역아동센터 중 상반기 미점검 시설 15개 지역아동센터의 통학버스 차량을

대상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구조·보호 표지·보험 가입 등 준수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이동복지과장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아동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추가 지원 시작

오늘부터 상담·접수 재개... 소기업·소상공인에 1000억원 규모 지원

전주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빌려주는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상담 및 접수가 재개된다.

시는 28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시는 당초 2년간 12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특례보증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48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의 사업 확대 요청에 따라 올해 5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전주 희망더드림 특례

보증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나머지 200억 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 내에 소재한 업력 3개월 이상,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1억 원 이내(신용보증재단 기 보증금액 포함 소상공인 1억, 소기업 1.5억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대출 기간 5년 중 3년 동안 대출금리 연 3%를 지원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산정된 대출금

리는 연 5.80%(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로, 시가 연 3%의 이자를 지원해주면 고객부담금리는 연 2.80% 수준이다.

특례보증 사업의 상담을 원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및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완산구 일 경우에는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063-230-3347)을, 덕진구일 경우에는 덕진지점(063-230-3385)을 각각 방문하면 된다.

/김옥기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